

농어촌공사 광주지사, 명예지사장 위촉 지역농정 협력 강화

✎ 주남현 기자 | ⌚ 승인 2026.03.25 18:18

농업인 대표들과 간담회, 농정정책홍보방안 등 논의



김철상 지사장(가운데)이 명예 지사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광주지사

| 광주=한스경제 주남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는 24일 지역농정협력 강화를 위해 광주지사 명예지사를 위촉하고,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및 농업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지사는 이날 행사를 통해 지역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 현장 중심의 정책 홍보와 청렴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광주지사 명예지사장으로 한국후계농업경영인 광주광역시연합회 나영란 회장, 한국농촌지도자 광주광역시연합회 김영섭 회장 등 3명이 임명됐다.

명예지사장들은 2026년 농어촌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농정 정책 홍보 및 지역사회 소통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올해는 한국농어촌공사 정책알림 '농어촌드림 홍보위원'으로도 활동,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리게 된다.

간담회는 ▲명예지사장의 역할 및 운영방안 ▲농정정책홍보방안▲농어촌드림 홍보 활성화 ▲광주지사 청렴지킴이(미스터리민원인) 제도 운영 협조 사항 등이 논의됐다.

김철상 지사장은 "명예지사장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 농정 추진 기반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열린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남현 기자 tstart2001@sporbiz.co.kr